장휘국(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장만채(왼쪽에서 세번째)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30일 오후 광주YMCA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교육을 연계하는 '혁신교육벨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출신 후보 4명의 단일화를 이끌어낸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후보와 신태학 전 후보가 30일 전남도내를 돌며 합동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정책공조로… 야간 3無운동으로… 단일화 효과로

〈무소음·무연호·무연설〉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들 '부동표 잡기' 올인

장휘국·장만채 '공동선언문' 통해 진보세력 결집

안순일·김장환 "교육전문가에 맡겨달라" 강행군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각종 이벤트를 터트리며 선거 막판 48시간에 올인 하고 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초박빙 판세인데다, 부동층이 50%를 넘어서는 등 변수가 많아서다.

후보들은 "남은 48시간을 잡아야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다"며 조직력을 총동원, 표몰이를 재촉하고있다.

'진보성향'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30일 광주YMCA에서 '혁신교육벨트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연대를 통한 진보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도·농간 아름다운 성장,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무상의무교육 실현 ▲부정과 비리 청산 ▲21세기 인재 양성 공동 시스템 구축 ▲광주·전남 학생·교사 교류 활성화 등 5대 공동 정책 실현을 약속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표 전날인 6월 1일까지 표심잡기에 올인할 계획이다.

진보진영의 정책연대에 맞서 안순일 시교육감 후보와 교육관료 출신 단일화 후보인 김장환 도 교육감 후보도 부동층 표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안 후보는 휴일인 30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남대 후문과 금남로 일대, 광주공원, 증심사 입구 등을 돌며 "수능 5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투표일까지 남은 '48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 광주시내 구석구석을 누빌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야간 유세때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야광 어깨띠와 피켓 등을 이용한 '무소음·무연호·무연설(방송)' 등 3무 운동을 남은 기간동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 출신 후보들과 단일화한 김장환 도 교육감 후보도 신태학 전 후보와 함께 전남도내 22시·군을 순회하는 강행군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전남의 넓은 선거구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동·서·중부권으로 나눠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남은 이틀간의 선거운동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진교육 정책과 함께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투표참여가 지역을 살립니다"

상품권 추첨·배지 배부·거리 캠페인 등

광주·전남 선관위 '투표율 올리기' 부심

선거관리위원회가 48시간밖에 남지 않은 6·2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가지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다. 추첨방식 상품권 나눠주기부터 기념배지 배부, 거리홍보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기업체 신상품 출시 이벤트가 무색할 정도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광주시 북구 패밀리랜드와 어린이대공원 상공에 투표 참여 독려 문구가 새겨진 길이 12m크기의 대형 무인비행선을 띄웠다. 앞서 29일에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증심사 일대에 무인 비행선을 띄워 유권자 투표를 호소했다.

시 선관위는 또 31일부터 선거일까지 광주시내 주요 도심에 영상차량 및 가두방송 차량을 순회하며 투표시간을 알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밖에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 투표 독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투표참여 안내문 부착 ▲유관기관 행정·구내방송 ▲동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 현수막 설치 ▲대형 전광판 홍보 ▲선거일 장애인·노약자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투표율을 올릴 계획이다.

전남도 선관위도 30일 전남 22개 시·군에서 6·2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동시 이벤트를 실시했다. 도 선관위 황용연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선관위 회의실에서 투표 참여 독려 선언문을 낭독한 뒤 초대형 기표용구로 '행복투표' 글귀가 새겨진 대형 천에 기표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또한, 이날 22개 시·군에서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문구를 도화지에 기재하고 카드섹션 퍼포먼스, 공명선거 ○X 퀴즈 풀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전남도 선관위와 담양군 선관위는 담양 죽녹원 전망대 앞 무대에서 선관위 캐릭터인 공명이와 담양군청 캐릭터 대돌이(대나무), 딸리(딸기)를 이용해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여성 초청 모의투표 체험, 대형 무인비행선과 소형 깃발을 부착한 택시행렬 세리머니, 4륜 자전거와 2륜 자전거 70여 대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투표 참여 이벤트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 선관위는 앞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안에 기표 모양을 새긴 투표기념 배지 1만 개를 만들어 투표 참여 유권자에게 나눠줬으며, 30대 이하 주니어(Junior) 유권자 등 네티즌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유도하고자 100만 원 이상의 경품이 걸린 '전남지역 투표율 맞추기 특별 이벤트'도 개최했다.

전남도선관위 서인덕 홍보과장은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내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참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투표소 11곳 줄고 수송대책도 미흡"

완도·화순·장흥 등 섬·산간지역 투표율 저조 우려

전남지역 섬·산간 지역의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투표소는 줄어들고, 섬·산간 지역에 대한 수송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유권자 반응도 냉담하고 1인당 8표를 행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작용하면서다.

20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870곳으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투표소(881곳)보다 11곳이 줄어들었다.

완도에서는 모두 30개소의 투표소가 설치돼 지난 2006년(34개소)에 비해 4곳이 감소했고 화순 5곳(43→38), 장흥 5곳(25→20), 나주 3곳(42→39), 구례 2곳(21→19), 보성 1곳(33→32), 영광 1곳(42→41) 등으로 줄었다. 그나마 지난 2002년(997곳)에 비해서는 무려 127곳이나 감소했다.

고령화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줄어들면서 자칫 투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나주시 동강면 대전·장동·옥정리 주민들은 이번 선거 때 동강남초교에 마련됐던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4㎞ 가량 떨어진 동강초교 투표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송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기 여객선이 없는 해남군 화산면 상마·하마도의 경우도 선관위의 수송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200여 주민들이 개인 배를 내서 투표를 해야 할 형편이다.

주민들은 "투표소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서 또다시 차로 이동해야 한다"면서 "배를 한 번 운항하는데 기름값이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얼굴도, 공약도 모르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러 갈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송대책 부재가 자칫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 독려를 명분으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낙도에 사는 주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비함정 46척을 동원, 신안과 완도 등 관내 75개 도서지역의 196개 투표함을 수송 또는 호송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